불자 세상보기

졸업생,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해마다 2월 이맘때쯤이면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치른다.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졸업은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침'으로 정의되어 있다. 말하자면 졸업은 정해진 학칙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며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고, 친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동안 가르쳐준 스승에게 눈물을 글썽이기 일쑤였다. 졸업식은 그렇게 많이 '시원섭섭한' 날이었다. 졸업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웅성대면서도 저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마음껏 이야기했다.

졸업은 이처럼 '마침'이기도 했고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다. 졸업식의 영어식 표현으로 정식명칭인 'Graduation Ceremony' 보다 새로운 '시작'을 함축하는 'the Commencement'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졸업식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과 취업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만 졸업식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졸업'의 남다른 가치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의 50~60대만 하더라도 졸업식에 가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자 특권이었다. 그만큼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작금의 졸업식 풍경에 대해서도 한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디가도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축사와 불과 몇 명의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수상의 기쁨은 대다수 졸업생들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다.

하물며 올해는 유명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적다거나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이 졸업식 축사의 내용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다.

예나 지금이나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정해주는 말들을 주고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인 故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대학 졸업생들에게 "늘 배고프게, 늘 우직하게(Stay hungry, Stay foolish)" 살 것을 주문했다. 이 한 마디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브라이언은 2000년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좋은 것만큼 나쁘기도 하다. 실패하고 어지럽고 가끔 망가져라. 그리고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일갈했다.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가 두렵기만 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용기와 위안을 준다.

이와 같은 졸업식 연설들은 시대적 메시지와 함께 한 국가의 장래를 암시해줄 만큼 감동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비전과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압축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무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기성세대의 솔직한 자기고백도 이제는 구차하고 식상한 변명으로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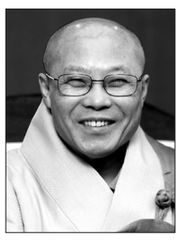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유명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실패했다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풀죽은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일단 축하받을 자격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의 일이다. 축 늘어진 졸업생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우리사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발언대

1983년 불교개혁 재조명

조계종 비상종단 출범 33주년을 맞은 올해, 당시에 추진됐던 개혁 종책들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회(대표 이희선)가 2월 25일 재조명 세미나를 연 것이다. 세미나에서 쏟아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편집자주〉

"부족했지만 획기적 발상"



법안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비상종단에서는 재가그룹이 대등하게 결합했다면 94년 개혁종단에서는 출가대중이 주도를 했다는 평가를 한다. 하지만 94년 개혁종단에는 상대적으로 출가대중이 광범위하게 결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결코 재가가 소수로 결합한 것은 아니다.

비상종단에서의 제도개혁은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주체세력들의 경험이 부족했으며, 일부 중진스님들이 결합을 했지만 역량이 미치지 못한 측면이 크다.

결국 종단은 출가승들의 이해와 정서를 온존하게 반영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재가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측면과 또한 일정한 개혁이 진척되고 난 다음에 전개되어야할 과제들을 섣불리 추진해 대중의 기대에 멀어진 측면이 크다.

그 이유는 아래로부터의 분출된 개혁이 아닌 소수 대중의 논의구조를 갖는 운영체계의 비상종단 성격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그 시기에 열정을 갖고 시도했던 신도포교와 종단 재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도는 대단히 획기적 발상으로 뒤에 개혁종단의 주요 종책에 대폭 반영된 측면이 있다.

출재가 함께하는 새 비전 필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비상종단의 의미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사회사적 평가가 불교사적 평가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주로 종단사적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

종단은 비상종단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비상종단에서 제기한 제도적 문제조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혁종단은 과거 국가권력이 만들어 준 정화불사의 종단이 아니다.

비상종단의 개혁안은 종권(宗權)의 외부 시각에서 정화불사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안은 전통과 비구중심의 정화불사의 틀에 갇혀 새로운 불교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너무 제도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든 승가(僧家) 스스로가 개척한 자주적 종단으로서 불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종단의 근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논평자는 그런 원인을 정화불사를 계속해서 자신의 개혁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中道 일신, 개혁정신 재약동"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개혁은 다수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기득층에게는 심각한 불안과 거부감을 촉발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또는 진보는 대체로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금욕주의와 구행주의에 치우친 기존의 수행 전통을 개혁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 개혁을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으로 표방하고 실천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중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방한 개혁의 실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불교의 개혁이 성문화된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도상의 개혁은 성문법을 요구하지만 역사적 평가에서는 성문법이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대세력에 의해 성문법이 파기되더라도 개혁의 정신은 파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상종단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고 확신한다.

社說

근대문화재 발굴에 범불교적 관심을

올해로 3.1운동은 97주년을 맞는다. 3년 후에는 100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교계 항일 운동가 발굴은 매우 미약하다. 최근 경허·만공선양회가 구성돼 만공스님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스님들의 항일 활동과 유적들이 있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은 근대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00여 건으로 이중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총 30건의 불교 근대문화재 중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는 8건으로, 이는 전체 근대문화재 중 2%에 불과한 수치다.

근대 문화재 발굴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올해 3.1절을 맞아 은평구가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1360여기를 통일로를 비롯해 은평로, 수색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 5개 도로에 게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이 소장한 백용성 스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을 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의식의 고취와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3.1운동이 100년을 맞기 전, 불교계는 근대 문화재 발굴·연구를 통해 항일 인사 조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교단적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종파, 사찰,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불교계 항일 인사 발굴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범교단적 역량 집중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0주년에 부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KCRP는 우리 사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1965년 출범했다. 현재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등 한국 7대 종단이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 ICRP 및 지역KCRP 등을 운영하고 있다.

KCRP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세미나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KCRP의 30년사 발간은 연중기획으로 이뤄진다.

KCRP의 가장 큰 성과는 '이웃종교' 개념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것이다. 이웃종교라는 개념의 확산은 역사적으로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변선환 목사 등 이웃종교와 화합을 강조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그럼에도 안타까움은 적지 않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피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년 많은 훼불 사건과 이웃종교에 대한 혐오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범종교적 참회와 반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 등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각 종교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위치를 달리한다.

KCRP 30주년은 축하할만 한 일이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종교간 협력이 '공공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참회와 성찰이 이뤄지는 대화모임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 인 모 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응용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